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5차 세션,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5,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계속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방인이었던 너희는 손으로 육신에 행한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 불렸으니, 그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 있고 약속의 언약들에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법도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원수의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두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를 죽이셨느니라.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합니다. 이 필요성은 이방인 불신자의 경우에 강조됩니다. 바울은 당신이 그 당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12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필요성은 그리스도와의 분리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우리는 또한 그의 모든 구원의 혜택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고 약속의 언약에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따라서 이방인 불신자들은 모든 신자의 대표자로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12절).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건대, 바울의 독자들이 것처럼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13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뉘앙스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치적이고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12절에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된 그와의 분리 영역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아들의 영역으로 옮기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한 영으로 다른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인용합니다(18절). 그리스도는 화해자, 평화 조성자이며,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연합시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고,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유대인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14, 15절).

그의 목표는, 인용하자면, 두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15절). 화해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두 번째 아담이시며,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그로써 구원 안에서 개별적인 신자들을 자신에게 합치고, 또한 그들을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 합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언어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캠벨은 바울이 15

절에서 자신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의 통합을 표현했다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사실, 제가 인용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에게 합치심으로써 그들을 함께 모은 분은 바로 그입니다.

캠벨, 다시 말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합치심으로써 화해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분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가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으니 그 안에서 온 건물이 합쳐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구성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18절). 이방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19절. 여기서 바울은 네 번째로 교회를 영적 성전이라고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3:16과 17:16-20, 고린도전서 6:19-20, 실례합니다, 고린도후서 6:16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고린도전서 3:16, 17, 고린도전서 6:19, 20, 고린도후서 6:16. 바울 서신에서 네 번째로 언급된 부분입니다.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초석이시며, 고린도전서 3:11, 16, 17에서처럼 그분과 통합된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초이며, 전체는 인용문입니다.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 에베소서 2:21.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을 성전, 거처로 만든다는 규칙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인용문,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22절. 이번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를 연구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주제 중 하나와 동일시를 보았고, 세 번째는 통합이었습니다. 참여가 세 번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별, 통합, 참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임재의 덕분으로 그의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그들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합시키고, 그들은 구약에서 그가 그들을 그의 이야기 속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참여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바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덕분으로 신약에서 추구되며,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공관복음과 행전에 뿌리를 둔 통합의 개념을 명확히 발견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방식으로 통합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건물이 성전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이며, 이 거룩한 성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리스도는 건물이 성전으로 자라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 거룩한 성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틸먼은 주 안에서라는 문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언어의 세 가지 용법, 즉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에게서, 건물 은유에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의 통합을 말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이 성전에서는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예배가 거행됩니다.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물과 성전이 모두 한 영,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1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로 만드십니다(21, 22절). 캠벨은 두 가지 중요한 요점을 추가합니다.

첫째, 성전 은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거처를 위해 함께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은유를 섞으면, 은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입니다(2:21). 바울은 그의 신학적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은유를 섞습니다.

그는 건물이 우리 눈앞에서 성전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역동적인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에 의해 점진적으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주하심이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성령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믿는 이들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세우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22절). 바울은 보통 내주하심을 성령께 돌리고 다섯 번은 그리스도께 돌리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두 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곳은 고린도후서 6:16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거하십니다.

저는 이전에 한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결코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성경이 단지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한다고만 말했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삼위일체적 인격은 구별 가능하지만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전체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5~6번 언급되었고, 그중 두 번이 이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편재성과 그의 특별한 임재를 구별할 수 있으며, 물론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아들의 특별한 임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며, 실제로 내주하는 데 있어서 주된 원동력인 성령의 특별한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 안에 있으며, 여기서는 단체적으로 강조됩니다. 에베소서 6:10-12는 놀라운 영적 전쟁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10-12.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힘으로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우주적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본문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인용문, 이 어둠을 지배하는 우주의 권세에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11절과 12절. 캠벨은 언급하고, 저는 이 구절에서 배웠습니다. 캠벨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로마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 발견되는 야훼와 그의 메시아의 전투 묘사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인용할 가치가 있다. 콘스탄틴 캠벨의 *바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용하면서*, 인용문은 이렇다. 따라서 에베소서 6:10-17의 의미 중 하나는 믿는 이들이 주님 자신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자신이 전쟁에서 입는 갑옷은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연합을 느끼게 한다. 이 연합이 페리코페 전체에 스며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6:10의 주님 안의 안코리오가 주님과의 연합을 전달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도가 10절에서 독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힘 안에서 강해지라고 명령할 때,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위대한 힘과의 연합으로 인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6:21-22.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충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목적, 곧 너희로 우리가 어떤지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서간 전체에 걸쳐 매우 널리 퍼져 있으며, 바울은 절반의 경우 서신의 서두와 마지막 인사말에 연합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상황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한다.

그는 티키고를 인용문에서 주님 안에서의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목회자로 묘사합니다(21절). 주 안에서는 바울에서 신자들을 위한 의역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티키고는 충실한 그리스도인 목회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안에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데 매우 흔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이 구원의 적용을 지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1세기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은혜를 실제로 가져오셔서 그 은혜를 인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영적으로 그와 합일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모든 구원의 혜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입양되고, 그 안에서 회심하고, 그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인내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에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다시 한번 ,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교리의 폭과 어느 정도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를 골라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12, 13, 14. 올바르게 하려면 4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수들, 바울은 그들을 강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들을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 악한 자들, 개들, 와, 바울은 꽤 핫합니다.

그들은 육체, 인간의 혈통과 성과에 자신감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빌립보서 3:4, 육체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기 위해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언약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의 충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이 붕괴되었을 때 배도하지 않은 두 개의 충실한 남쪽 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유일한 언약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가족들은 독특했고, 바울의 가족도 그 중 하나였다. 그의 어머니는 코셔 주방을 유지했고, 그들은 집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히브리인 부모의 히브리인 아들.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옳은 일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고, 그들은 그를 크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고, 베푸고, 금식하는 헌신적인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영적으로 매우 헌신적인 유대인으로 우러러보았습니다.

바울은 열심에 관하여,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의 의로움에 관하여,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정말 흠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눈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로마서 7장까지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살아나게 하셨고, 그것은 그의 탐욕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이익은, 빌립보서 3:7,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로 여겼습니다. 그는 더 나아갑니다.

참으로 나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의 뛰어난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깁니다. 쓰레기로 번역하면 스쿠발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는 믿음에 따라 그분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음에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얻었거나 이미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빌립보서 3:12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힘씁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힘쓰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강의에서 조금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에 대해 방금 전에 읽은 구절들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언어로 논의할 때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께서 간접적으로 연합에 대해 말씀하시는 여섯 군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절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서 정당화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가 바로 집중하기를 바라는 말씀은 12-14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노력합니다.

그는 고군분투합니다. 콜로새서 1장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덧붙여 말합니다. 그는 그 콜로새서 1장 본문에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수고합니다.

골로새서 1:29. 이를 위하여 나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게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모든 힘으로 싸우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수용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의 부활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죄와 씨름합니다.

그가 표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인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큼니다.

바울의 위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의 성취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19 .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이 자신에게 기여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에서 그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과 주님과와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 가운데서 불화나 비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용을 증가시키는 열매를 구합니다. 빌립보서 4-18. 나는 전액을 받았고 그 이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여러분이 보낸 선물을 받아서 넉넉합니다. 향기로운 예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제사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영광 속의 부를 자격을 갖추시고 연합을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는 바울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와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는 쉽게 하나를 다른 하나와 연관시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선물을 주고받는 1세기 로마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선물은 주어졌고 받는 사람의 의무였다. 받는 사람이 기부자에게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호의가 포함되었다.

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는 은혜의 이름으로 사회적 관습을 깨뜨린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복음은 사회적 관습과 결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죄인들은 원하더라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칼빈이 매우 효과적으로 가르친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골로새서 1:13과 14. 그러니 11절부터 시작해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힘에 따라 모든 권능으로 강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참을성을 갖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죄와 심판의 어둠의 왕국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이는 그들을 다른 왕국,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13절). 이 왕국의 이전은 14절에서 in whom의 용법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위치나 배치와 관련된 익숙한 위치적 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나 영역 또는 왕국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과 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과 용서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콜로새서 1:27과 28은 어떨까요?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이방인들 가운데 알리시기를 택하셨으니, 이 신비는 곧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곧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는 수고하며 그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의 모든 힘으로 애쓰노라.

이방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하신 구원을 장대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 신비의 영광의 부요함, 27절.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에 영을 부어주셨을 때만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건너뛰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PT 오브라이언은 그 관행을 바로잡습니다. 인용문에서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가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의 성격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축복을 호사스럽게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PT 오브라이언의 주석,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위대한 신비는 무엇인가? 바울은 27장에서 답한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구속을 얻고 죄 사함을 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할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밖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그는 이방인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던 자들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에서 그는 우리의 미래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임재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영광을 확신시켜 줍니다.

적절한 경고와 지시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숙하게 하는 주된 수단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모든 신자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용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다, 인용문 닫기. 제시라는 단어는 22절에서 사용된 것과 비교했을 때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즉 심판자이자 구세주인 그리스도 앞에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캠벨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열심히 일합니다(29절).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인용한 대로, 그가 강력하게 일하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나, 우리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29절).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와 그의 왕국을 위해 수고할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9, 10.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영에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여러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매우 높은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콜로새서 2장, 9장, 10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단위를 형성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캠벨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연합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같은 아들과 우리의 연합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끌어낸다. 인용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그런 6곳 중 하나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언어는 항상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메인, 행위, 도구 등의 위치적 의미를 봅니다.

하지만 6곳에서 그 뉘앙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그 여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충만함을 얻습니다. 이 독서의 강점은 10절의 양쪽 구절에서 나옵니다. 2-9절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2:11은 그리스도의 할례에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2:12 는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2:13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그 문맥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매우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10의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F 브루스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간결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인은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삶에 참여합니다. 신성의 총만함이 그에게 거주했다면, 그의 총만함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주장에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이단이 제공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에서의 세례 외에 특별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총만함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으로 채웠습니다. 골로새서 3:1-4도 이와 관련하여 교훈적이며, 2:20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연합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골로새서 2:20, 세상의 초등적인 영들에 대해 죽었다면, 왜 세상에 살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규정에 복종합니까? 3:1,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금욕적 요구에 반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인체를 엄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메시지를 반복하며,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인용합니다.

3:2, 하지만 그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는 독자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그는 두 번 위로, 명령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1:2. 왜?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의 파멸적인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는 그리스도입니다(2:8-15). 거짓 가르침의 헛된 금욕주의에 대한 해독제는 그리스도입니다(16-23).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지적 독과 실제적 독에 대한 해독제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해독제, 그리스도, 골로새서 2:8-15. 거짓 윤리에 대한 해독제, 금욕주의, 그리스도, 2, 16-23. 그러므로 사도가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곳 위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를 찾는 동기로 강조합니다. 그가 독자들에게 "너희는 죽었느니라"고 말할 때, 3:3은 분명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2-20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졌다고 말합니다(3절).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 교리와는 반대로, 바울의 독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즉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상의 삶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집에서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상적인 가르침이지만, 영성의 수단으로서 육체적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3절). 오히려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지상에서의 일상 생활을 위한 힘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일어났고, 그와 함께 승천했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옵니다. 바울이 인용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이신 분이 나타나실 때, 당신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언급하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의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재림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재림이 없는지 신중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재림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더글러스 무는 그의 위대한 콜로새서 주석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석이 되었는데,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인용문: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믿는 이들이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동일시는 지금은 실재하지만 감취져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골로새서 1:27).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표현된 동일한 연합,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 소망을 확실히 성취할 것입니다. 인용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와 함께 다시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그의 재림 때에만 우리의 참된 영적 정체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사람에 근접할 뿐이며, 우리는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때 영광과 거룩함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로마서 8:18과 19에서 같은 진리에 대해 말합니다. 인용문, 나는 이 시대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워드, 인용문 닫기.

계시로 번역된 단어는 묵시록이며, 더 문자적으로는 계시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종종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요한은 같은 현실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인용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 2. 요약하자면, 바울의 독자, 삶, 미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바울은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인용문, 당신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골로새서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맥락상, 그는 콜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제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3절). 오브리언은 그들과 우리의 기쁜 전망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의 삶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의 삶을 공유하는 우리 역시 그의 영광스러운 깨달음을 공유할 것입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글을 통해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것들을 완료한 다음 동일한 것과 관련된 바울의 생각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로버트 피터슨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15번째 세션, 바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